

 대한민국정부	보 도 자 료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2016.5.27(금)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탁 윤 성(02-2100-2880)	담 당 자	현 지 은 사무관 (02-2100-2881)	
	기재부 국제통화협력과장 이 병 연(044-215-8730)		전 중 현 사무관 (044-215-8732)	

제 목 : 금융안정위원회(FSB)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참석 -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이슈, 핀테크 등 논의 -

1. 회의 개요

- ☐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은 '16.5.27(금)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(FSB)*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에 참석하였다.

* FSB(Financial Stability Board):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·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·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

- 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는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신흥국을 비롯한 FSB 비회원국의 참여 확대를 위해 '11년 구성된 FSB의 지역별 회의체 중 하나로,
-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석하였으나, FSB 지역자문그룹 참여기관 확대를 기획재정부가 올해초 추가 가입하여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.

2. 주요 논의 내용

- ☐ 금번 회의에는 아시아 지역의 16개 국가(FSB 회원 8개국, 비회원 8개국)와 FSB,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,

- FSB 사무국으로부터 금년도 FSB 활동 내용과 추진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,
- 아시아의 금융안정과 취약성 관련 이슈, 금융기술과 사이버보안, 금융기업 지배구조 감독 가이드라인 개발, 바젤위원회의 신용 리스크 표준방법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☐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성장 및 무역 둔화,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*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,
* EU, 일본 등의 양적완화, 저금리 정책, 미국 금리 인상 등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도입된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, 외국인 거래 축소, 부채 증가 등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☐ 기획재정부는 선진국 통화 정책 다변화, 미국 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흐름 변동성 증가 등 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하여,
○ 거시건전성정책과 자본흐름관리 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.
- 또한, 금년도 금융규제 개혁 이행 보고서에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.
- ☐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금융 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과 핀테크 육성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.
- IT기술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에 투자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,
○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정책경험을 공유하였다.

참 고

FSB 아시아 지역자문그룹(RCG) 개요

* Regional Consultative Group

- (정의)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에 대한 신흥국을 비롯한 FSB 非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성된 FSB의 지역별* 회의체

* 아시아, 아메리카, 유럽, 중동 및 북아프리카, 남아프리카, 독립국가연합 등 6개 지역

- (설립) '10.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시 G20 회원국을 넘어FSB 활동범위의 확대 및 이의 공식화가 요청

- '11.7월 FSB 파리 총회에서 6개 지역자문그룹의 운영체제와 회원구성안을 확정

- (역할)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동향, 역내 금융안정 점검, FSB 추진 과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교환

- FSB 추진과제 및 금융시장 안정 관련 이슈를 공동의장을 통해 FSB총회에 서면의견 제출 가능

-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일부 FSB안건의 경우 RCG회원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의견수렴 실시*

* 예: 위기관리그룹(CMG)에 참석하지 않으나 국내적으로 G-SIB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당국과 G-SIB 본국 당국 간의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

- (의장) 역내 회원국 中 1인, 비회원국 中 1인을 선출하여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, 공동의장 임기는 2년

* (현 RCG아시아 의장) 홍콩 HKMA청장 Norman Chan,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 Ashraf Mahmood Wathra

- (참여) 현재 우리나라, 일본, 중국 등 8개 FSB 회원국과, 태국, 베트남, 파키스탄 등 8개 FSB 非회원국 참여

-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 참여

< 현 RCG아시아 참여국 >

FSB회원국	FSB비회원국
일본, 중국, 인도 싱가포르 한국, 호주, 홍콩, 인도네시아	태국, 베트남, 필리핀, 뉴질랜드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